

□□□, □□□□□□□□ □□□□□ □□□



□□: □□□(□□□, Naldo Choi)

□□: □□ □□

□□: □□□□

□□□□ □□: □□□□

□□□□: amhaeng@naver.com

<http://arirangs.com/news/view.php?no=2082>

<□□□ □□□□>
□□□□ □□ □□
□□□□□□□□ □3□ □□□□□ □□□
□□□□□□□□ □□□ □□□
□□□□□□□□□ □□
□□ □□ □□ □□□□□ □□
(□)□□□□□□□□□□ □□□□
(□)□□□□□ □□□□ □□□□
□□□
2019 <□□□ □□□: □□□□□>, □□□□□□□, □□
2019 <□□□□□>, □□□□□, □□

□□□□□□ 2021-04□ □2021□ 6□ 16 □~8□ 15□□

□□□□

[“□□□ □□□□ □□□□□”□□ □□ \(6. 16.\)](#)

□□□□□□□□ □□□□ □□ □□□ 2□□□ □□□ □□□ □□, □□, □□, □□ □□ □ □□□ □□ □ □□ □□□ □□□ □□□ □□□ □□□□.

[‘□ □□ □□’ 10□□... □□ □□·□□ □□ □□ □□ \(6. 17.\)](#)

‘□□□ □□’□ □□ 2012□ □□ 10□ □·□ □ □□□□ □□□□□ □□□ ‘□ □□ □ □ □□’ □ □□□.

[“40□ □ □□□ □□ □ □ □□□□ □□□□□□ □□□ □□” \(6. 24.\)](#)

□□□(63) □□□□□□(□) □□□□□□□□ □□ 3□ □14□ □□□□□□ □□□ □□, □□ □□ □□□ □ □□ □□□ □□□ □□ □□ □□□□ □□ □□□□□□ □□.

[□□□ □□□□□□ \(6. 25.\)](#)

□□□□□□□□□□□□□ □□□□□ □□ □□ 4□□ □□□□□ □□ □□ □□□ □□□ □□□ □ □□ □ □□□□□ □□□□.

[□□ □□□□□□, □ □□□ □□□□... ‘□□□’ □ □□□ \(6. 28.\)](#)

□□□ □□, □□, □□, □□ □ □□□ □□ □□□ □□□□ □□□ □ □□ □□□□□□□ □□□.

[□□□ □□, □□□□□ □□□ □□ \(6. 28.\)](#)

□□ □□□□ □□□ □□□ □□□ □□□ □□□□□□□□□ □□ □ □□ □□□ □□□ □□ □□□ □□ □ □□.

[“□□□□□ □□□ □□□ □□□ □□□□□” \(7. 1.\)](#)

□□ □□ ‘□□□□□’□ □□ □□□□□ □□□□ □□□ □□□□ □□ □□ □□□ □□□ □□ □□□ □ □□□ □□□□□.

[□□□ □□ 40□ □□□ □□□□...‘□□□□□□□. □□□□□□□□□’ \(7. 3.\)](#)

□□□□□□□ □□□ □□ 40□□ □□ □□□ □□□ ‘□□□□□□□. □□□□□□□□□’□□ □□□□ □□□□.

[\[링크\] '00 000 000 00' 000 00 \(7. 5.\)](#)

00 00(00) 0000 00(00) 000(1905~1944) 00000, 000 0000 0000000 0000 000 000 00 0000 0000.

[\[링크\] 000000, 000 00 000 e0000 00 \(7. 5.\)](#)

0000000 0000000000000 00 1000 15000 00000000000 000 0(artist.ifac.or.kr) 00 000000 e00000 00 00 000 000.

[\[링크\] 0000000 00000 0000 0000 00 00 \(7. 13.\)](#)

00000 00000 00 10 00 0 000 000 00 00 00000000 000000 000 00000 00000 0 00000 00 0000.

[\[링크\] '520 000, 00 000' 0... 200 00 \(7. 16.\)](#)

00 000 000 000 000 000000 00 00000 00 00000, 00 00 0 00000 000 000 00 00 00000 00 000 00 0000 000 0 0 00.

[\[링크\] 00 000, 00000 00 00...00 0 00 00 \(7. 21.\)](#)

00 00 0000000 00 000 00 000 0000, 0 000 00 80 3000 000000 000000 210 000.

[\[링크\] 000 00 "00000 00 00 '00', 000000 0000 0000" \(7. 23.\)](#)

0000000 20170 00 000000 000000 0 000 000 000 000 00000 00, 00, 00 00 00 00 0 <00> 0000 0000 00000.

[\[링크\] "00 0000000 00, 00 00000" \(7. 23.\)](#)

00 0000000 0000 00 000 00 0000 00 00 000 00000 0000 0000 0000.

[\[링크\] 00000000 '000000000 00 0000000'0 0000 0~ \(7. 27.\)](#)

000000000 00 00 000 400 000000 0 000 00000 000000 00000 00 000 000 0 0 000 000 00 00000 00000 0000 00 000 0 0 000 00000.

[\[링크\] 000000 0000 00 00 0000 \(7. 28.\)](#)

000000000 0000000000 00000 00 0·0000 00000 00000 '0n-Art School' 000000 00000, 000 000 000000 000000 270 000.

[\[링크\] 0000 0000 00000 0000, 00000 0000 00 00 \(7. 29.\)](#)

00 0 00 000 0000 0000 00000000 00 00000 1600 0 11000 000 00 00 00.

[\[링크\] 00 00 00000000 '00000 00000' 0 \(8. 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2025년 상반기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2025년 상반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4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6. 2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4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국립현대미술관 2025년 상반기 기획전)’을 개최한다. 2025년 상반기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5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6. 24.\)](#)

국립현대미술관 5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6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6. 24.\)](#)

국립현대미술관 6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24일

[국립현대미술관 7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6. 25.\)](#)

국립현대미술관 7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8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7. 3.\)](#)

(Noodle) 국립현대미술관 8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2025년 하반기 기획전 \(7. 8.\)](#)

국립현대미술관 2025년 하반기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8월

[국립현대미술관 9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7. 16.\)](#)

국립현대미술관 9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16일 1일

[국립현대미술관 10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7. 26.\)](#)

국립현대미술관 10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11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7. 28.\)](#)

국립현대미술관 11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12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 \(8. 9.\)](#)

국립현대미술관 12월 기획전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K-아트’를 개최한다.

○○○○○○○○○○ ○○○○○○○○○○○○○ ○○ ‘○○○○○○○○○○-○○○○○○○○○○ ○○○○’ ○○○○○ ○○○○○
13○ ○○○.

[○○ ○○○○○○, 2021○○○○○ ○○○○○ ○○ \(7. 14.\)](#)

○○○○ ○○○○ ○○○ ○○○ ○○○ ○○○ ○○○ ○○○○○○○(○○○ ○○ ○○○○○○ ○17○)○ ‘2021
○○○○○ ○○○○’○ ○○○ ○○○ ○○○○○○○ ○○○○○○ 14○ ○○○.

[○○○ ○○ ○○ ‘○○○○’, ○○○○○○○ ○○○○○ ○○ \(7. 19.\)](#)

○○○ ○○○ ○○○○○ ○○○ ○○ ‘○○○○’○ ○○ ○○○ ○○ ○○○○○○○ ○○ ○○○ ○○○○ ○○.

[○○ ○○, ○○○○○○○ ○○ ○○ ○○ \(7. 21\)](#)

○○○○○○ ○○○○○○ ○○○○○ ○○ 40○, ○○ 40○○ ○○○ ○○○○ ○○○○ ○○○○○○○ ○○○○ ○○ ○
○○ ○○○ 100○ ○○○ ○○○ ○○○ ○○○○.

[○○○○○ ○○ ○○ ‘○○○○’ ○○○○○ ○○ \(7. 27.\)](#)

○○○○○○○○○○○○ ○○○○○○○○○○○○○ ○○○○○○○ ‘○○○○, ○○○○○○ ○○’○○ 27○ ○○○○○○ ○○○○○○
○○ ○○ ○○○.

[○○ ○○○ ○○○○... ○○ ○○ ○○○ ○○ ○○○○ \(7. 30.\)](#)

○○○○○○ ○○○ ○○ ○○○ ○○○ ○○○ ○○○ ○○○ ○○○ ○○○○ ○○○○ ○○○○○○○○ ○○○○○ ○○ ○○
○○.

[○○○○○○○ ○○○○ ○○ ○○○○ ○ ○○○○ ○○ \(8. 2.\)](#)

○○○ ○○○○ ○○○ ○○○ ○○○ ○○○ ‘○○○○○○○’ ○○○ ○(○) ○○○ ○○○ ○○○ ○○○○ ○○○○○○○ ○○
○○○○ 8○○○ ○○ ○○ ○○○ ○○○○○○ 1○ ○○○.

[○○○○○○○ ○○○○ \(8. 4.\)](#)

○○○○○ ○○○○ ○○ ○○○○ ○○○○○○ ○○○○ ○○○○ ○○ ○○○ ○○○ ○○○ ○○○ ○○○ ○○○ ○○○ ○○○ ‘○
○ ○○○’○ ○○○○.

[○○○ 1○ ○○○○○○○ ‘○○○ ○ ○○○○’ ○○ \(8. 9.\)](#)

○○ ○ ○○○○, ○○○○○○ ○○○○○○, ○○○○ ○○○ ○○○, ○○○ ○○○○○○○○ 9○ ○○○○○○ 1~4○○ ○○○
○○ 8○ ○○○.

[○○○○○ ○○○○ ○○○○ ○○ ○○ ○○ \(8. 10.\)](#)

○○○ ○○○ ○○○○○ ○○○○○ ○○○ ○○○○ ○○○ ○○○○○○○○ ○ ○○○○ ○○○ ○○○○ ○○○○ ○○○○.

○○·○○

[○○○ ‘○○○○○ ○○ ○○○○’ \(6. 16.\)](#)

00 00

[0000000 00 0000 \[0000000\]](#)

2020 6 00 00 00 00000000 000 00 0000400 000 0 0000

[00000 00 4000 000 00 \[000000\]](#)

00000 000 000 000 0000, 00000 00 00 000 00 000 000 0000000 000
000 000 00

[↳ 00 00 40 0000 00 000 00 \[000000\]](#)

[0 00 00, 0000 \[0000000000\]](#)

[0000000 00 000 00 00 \[000000\]](#)

00·00·000 00 00 0000 0000 0000 00000000 00000000 000 00 000 00

[00000000 \[0000000\]](#)

0·0·0 000000 000 00, 0000 000 00 000000, 000 0000 00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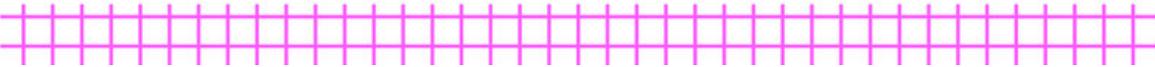
[↳ 0000 000 00 0000 00 00 00 \[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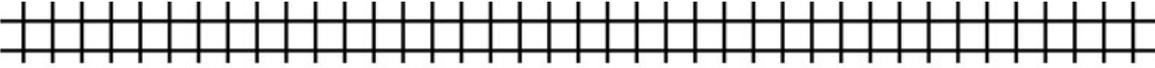
[0000000000 0000 000 00 000 \[000000000000\]](#)

2021 00000000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인천문화포럼에서는

인천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모여
문화권 확대를 위해 토론합니다.

2017년 결성 이후,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고
올해는 네 개의 커다란 주제 안에서
문화예술에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살아봐 좋아~

인천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시민문화력을 높이는 방안과 자부심을 찾아봅니다.

문화부시장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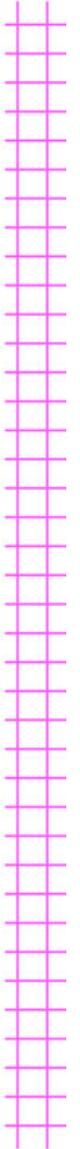
문화가 별개인가?
우리 삶이 나아지려면
모든 곳에서 '문화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부시장의 등장이 가져올 내일을 그려보아요.

문화매개자는
이슬만 먹고 산다.

문화매개자를 배고프게 하는
이 가로막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시민문화도 자라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인천에
바다가 있어?

인천! 하면 바다! 도 떠올라야 하는데,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다가 일상에 스며들 수 있을까요?



예술 지원 탐사단

다양한 예술 지원 정책을 추적하며
여기저기 산재한 문제를 발굴합니다.

문화 공간 탐사일지

문화 공간은 다양해지는 반면
공간 운영자의 삶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추적하러 떠나봅시다.

선정,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피 튀기는 지금의 선정제도.
하지만 예술은
'경쟁이 아니라 감동이에요.'

예술, 지원을 넘어 '투자'로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행사...
지겹지 않나요?
우리, 좋은 예술은 더 크게 보자고요!

탐사 지도 비교하기

전국의 예술지원 제도에서
과연 인천은 어디쯤 와 있을지,
그 지형도를 펼쳐 보았습니다.

청알못 시름x씨름

청년 문제에 있어 비전문가인 우리가
인천 청년 문화에 대해 함께 시름하고 씨름합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면
인천 청년 맞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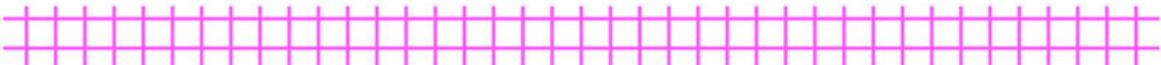
인천에 살지만
서울로 출근하고 퇴근 후엔 넷*릭스.
그래도 우리 '인천 청년' 맞나요?

젊은이들은
건강할까?

“젊으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이십대면 뭐...”
이런 이유로 밀려난 청년의 '건강권 보장'
이제 신경써야 할 때!

품의가 품위를
지켜주나요?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이제 막' 진입한 청년들이
맞닥뜨리는 행정언어.
그 낯선 어려움을 파헤쳐봅시다.





인천 문화, 아카이빙?

아카이브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쉬어 인천을 돌아봅니다.

그 많은 ~~상~~아
아카이브는 누가
다 먹었을까?

여러분의 역사가
여태 잘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잠시만!
기록이 '잘' 되고 있긴 한 거예요?

유용한
아카이브를
만든다면,

그래서 '아카이브' 그거...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죠?

광활한, 좁고
깊게 진동하는
아카이브

지금까지 아카이브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 보자고요!
이름하여, '아카이브-다시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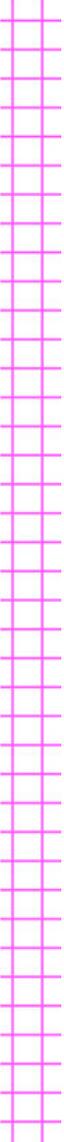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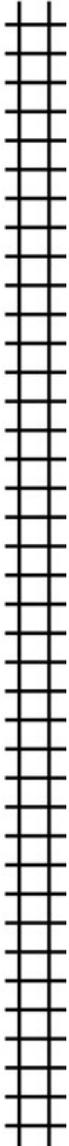
인천문화포럼은

인천 문화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지역 문화를 가꾸려는 사람들이
공감,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넓혀갑니다.

민과 관을 잇는 가교 역할로
인천 문화의 역동성을 높입니다.





포럼 참여자

권근영, 권기영, 권은숙, 김종현, 박정하, 손동유,
안희석, 우사라, 윤미경, 이강민, 이민하, 이종범,
임승관, 전승용, 전효정, 차광윤, 채은영, 최열, 한상정

진행

인천문화재단 정책협력실
손동혁, 이현식

행정지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정윤희, 최유리

후원
인천광역시



운영
인천문화재단



10월에
2021 인천문화포럼의
자세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제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GCC(Gallery Climate Coalition)을 2030년까지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름(성명, Nam Sunwoo)

이름: 이선우, 성명: 이선우, 생년월일: 1990년 1월 1일, 직업: 예술가.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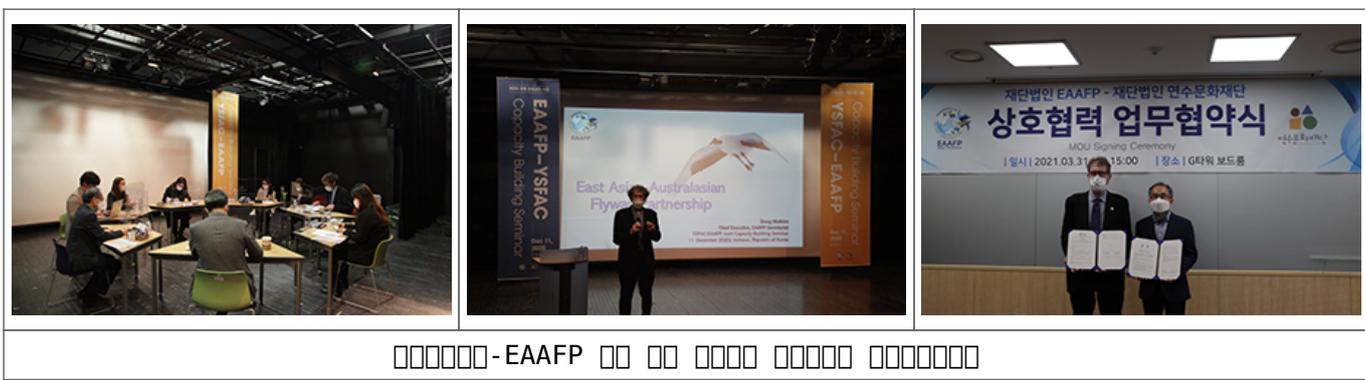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

이선우(이선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매출 28.5억¹⁾을 달성하였다. 또한 이 해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였다. 2021년 매출 목표 39억 원 중 70% 이상을 달성²⁾한 6월 매출 '역성장' 또한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또한 이 해 매출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앞으로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며 '이익 성장률'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실적 요약>(단위: 억 원)에 '이익 성장률'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실적 요약에 따르면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EAAFP는 G-Tower를 시작으로, 수도권-지방 간 협력사업 2006년 11월 개시. 총 35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EAAFP는 12개 <주요 실적 요약-EAAFP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총 3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협력사업 2006년 11월 개시. 총 35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실적 요약-EAAFP 주요 사업 추진 모습

앞으로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실적 요약-EAAFP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총 3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협력사업 2006년 11월 개시. 총 35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³⁾

앞으로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EAAFP는 G-Tower를 시작으로, 수도권-지방 간 협력사업 2006년 11월 개시. 총 35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실적 요약-EAAFP 주요 사업>을 추진하여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총 3개 사업 추진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협력사업 2006년 11월 개시. 총 35개 사업 추진을 통해 이 해 매출 성장률·이익 성장률 또한 높은 성과를 보이며 '이익'도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0000 0000 00 000000 000 000. 00 00 000 000000 000000 <0000 00>0 00 0 00000 '0-0' (030)0 00000 000 00000. 00, 000000 0000000 1700 00000 0 0000 00000 000 00 000000 00.⁴⁾

00 000 000000 0000000 000 00 00 000. 00000 000 00 00000 0000000, 00 00 00. 00000 00000 "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00."00 00000.⁵⁾ 20200 0000 00000 10 <00000000 0>0 00000 000 0 00000 00000.⁶⁾ <0 000000 0>0000 00, 00, 000, 00000, 00000 00000. 0 000 00000 '0000 000' 0 000000000 00000 00 000 0 00000 00.

1000 00000 <0000 00000>0 00 00000 00000 00 00 000 00000 00 000 00000 Bowerbird Collective0 00 000 0 00000 00 000 0 000 000 000 00000 00. 0 0 00000 000 00 00 000 00 00 000 0000, 000 00 00000 00 000 0 00 00.

* * *

0000 00 00 000 00000 000000 000000 0000 00 000 0 00 <0000 00 000 000 00 >, 00 000 000 00000 00000 00000 00 000000 00000 00 00 00000 <0000000 00000>0 0000 00000. <000000> 0000 00 000 000 00000 0000 0000 00 00000 0 0000 0000, 0000000 00000 0000 0000 00000 00 00 00 0000000 00000 00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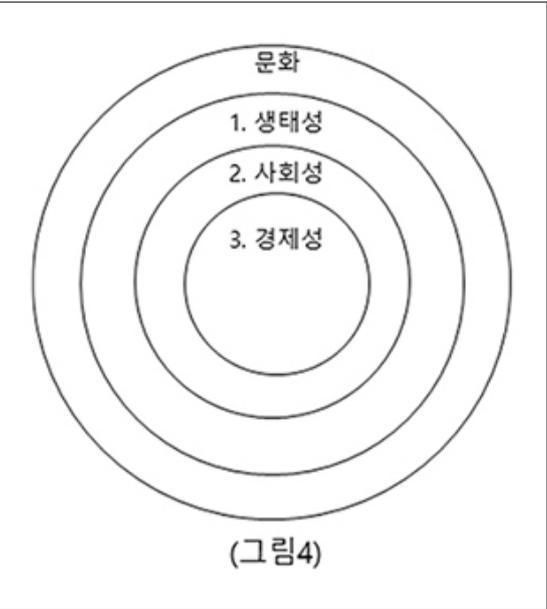
- 1) 0000000000, 000000000-0000
(<https://data.kma.go.kr/climate/rainySeason/selectRainySeasonList.do>)
- 2) 0000 , 0000 00 00000 00 00...390 00 70 0000, 2021.06.2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72046&plink=ORI&cooper=NAVER)
- 3) 0000, 00000 0200000000 00000 00000 0000000, 00000, 2021.06.1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48238?sid=102>)
- 4) 0000 00 00000, 0000 00000 (2015)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79915&cid=59001&categoryId=59006>)

삼 기둥 이론(Three pillars theory)은 독일의 화학 공학자 베르드 하이네스(Bernd Heins)가 1994년에 제안한 것으로,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기둥, 즉 환경, 사회, 경제를 1994년 리우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이론은 1996년에 설립된 독일 화학 산업 연맹(Verband der Chemischen Industrie, VIC)에 의해 널리 채택되었으며, '삼 기둥 이론'은 독일의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의 핵심이 되었다. (출처: [https://de.wikipedia.org/wiki/Drei-S%C3%A4ulen-Modell_\(Nachhaltigkeit\)](https://de.wikipedia.org/wiki/Drei-S%C3%A4ulen-Modell_(Nachhaltigkeit)))

'삼 기둥'은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0년 유엔 밀레니엄 발전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은 '약한 지속 가능한 발전(Weak sustainable development)'과 '강한 지속 가능한 발전(Strong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나뉘며, 후자는 1998년에 제정된 '약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비해 '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0년 유엔 밀레니엄 발전 목표와도 관련이 있다.

이 이론은 '삼 기둥 이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존 호크스(Jon Hawkes)는 이 이론을 '삼 기둥 이론'으로 재구성했으며, '삼 기둥 이론'은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4년에 제정된 '문화 21(Agenda 21 for culture)'과도 관련이 있다.

2015년 7월 유엔은 '문화 21'을 채택했으며, 이는 '삼 기둥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환경, 사회,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04년에 제정된 '문화 21(Agenda 21 for culture)'과도 관련이 있다.



2015年可持续发展目标(SDG)中的第4个目标“优质教育”与第17个目标“促进目标实现的伙伴关系”密切相关。教育是实现可持续发展目标的关键。联合国教科文组织(UNESCO)倡导“可持续发展教育”(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旨在通过教育培养公民的可持续发展意识。ESD强调跨学科、跨领域、跨文化的合作，通过对话、协商和共识来解决问题。在文化领域，ESD强调通过文化对话和跨文化理解来促进可持续发展。联合国教科文组织文化区域协调局(Koordinationsbüro Kulturregion)在促进文化对话和跨文化理解方面发挥着重要作用。该局通过组织各种文化活动和项目，促进不同文化之间的交流和理解。此外，该局还通过提供培训和咨询服务，帮助文化机构和组织提高其可持续发展能力。总之，ESD是实现可持续发展的关键，通过教育培养公民的可持续发展意识，可以促进社会的可持续发展。

1970年代以来，文化政策逐渐从“文化为所有人”(Kultur für alle und von allen)转向“文化为所有人”。这一转变反映了文化政策的核心理念，即文化是所有人的权利，也是所有人的责任。通过文化政策，可以促进不同文化之间的交流和理解，实现文化的多样性和包容性。

经合组织(OECD)在2013年提出了“为艺术而艺术”(Art for Art's Sake)的概念。这一概念强调艺术本身的价值，而不是将其作为实现其他目的的工具。然而，艺术在教育中扮演着重要的角色。通过艺术教育，可以培养学生的创造力、批判性思维和解决问题的能力。此外，艺术教育还可以帮助学生建立自信、提高自我表达能力和团队合作精神。Burke Feldman提出的“基于学科的艺术教育”(Discipline-based arts education, DBAE)是一种强调艺术与其他学科相结合的教育模式。DBAE认为，艺术是其他学科的重要组成部分，通过艺术可以加深对其他学科的理解。DBAE强调艺术与其他学科的相互渗透和相互促进，通过艺术可以培养学生的综合素质和创新能力。总之，艺术教育是实现可持续发展目标的重要途径，通过艺术教育可以培养学生的综合素质和创新能力，促进社会的可持续发展。

2030年可持续发展目标(SDG)中的第4个目标“优质教育”与第17个目标“促进目标实现的伙伴关系”密切相关。教育是实现可持续发展目标的关键。联合国教科文组织(UNESCO)倡导“可持续发展教育”(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旨在通过教育培养公民的可持续发展意识。ESD强调跨学科、跨领域、跨文化的合作，通过对话、协商和共识来解决问题。在文化领域，ESD强调通过文化对话和跨文化理解来促进可持续发展。联合国教科文组织文化区域协调局(Koordinationsbüro Kulturregion)在促进文化对话和跨文化理解方面发挥着重要作用。该局通过组织各种文化活动和项目，促进不同文化之间的交流和理解。此外，该局还通过提供培训和咨询服务，帮助文化机构和组织提高其可持续发展能力。总之，ESD是实现可持续发展的关键，通过教育培养公民的可持续发展意识，可以促进社会的可持续发展。



김성원 (Kim, Sangwon Kim)

김성원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연구소에 근무하며,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입니다.

주요 연구 분야: 딥러닝,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이력서 - 1>

2020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인공지능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과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자연어 처리와 컴퓨터 비전입니다.

이력서 작성 목적: 이력서 작성 목적은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김성원 (이력서 작성)



0000 / 0000 00

- () 000000 0000000000 0000
- () 0000 00 000000 0000000 00
- () 000 00 000(DACASDiscover Accept Concern Achieve Spread) 00 00
- () 0000000 0000
- () 00 000 00 0 00

Q: 000000? 00 000000. 0000000. 00 0000000? 00 0000 000000?

A: 0000 00 000 000 0000 00 0000 000 000000. 000 00 000 000000, 0 0000 000 00000 0000000 000 000000000. 000 00 0000 0 00 00000.

Q: 00 000 00000 0000000. 000 00 000 00 00 00 000 00000 000000. 0 0 000 000, 00000 00000, 00 00 00000. 0 000 000 000000 30 00000 000. 0 00 000 00 000 000000, 00 00 000 66000 000 000 00 00000. 000 000 00000 000 0 00. 0 00 00000. 00 00 00000 00000, 000 0 000 000 000 0 000, 00 00.

Q: 00, 00 000 00000 000?

A: 000 000. 00 000 00 00000 00000 00, 0 000 000 000 00 000 000 0 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000 00000. 000 000000 0 0 000 000 0 000 000000. 00 0 0 00000 00000 00 0 0 00 00 00000 00

이 글은... (중략) ...입니다. (중략) ...입니다. (중략) ...입니다.

Q: ...

A: ... 1984년 ... 1994년 ... (중략) ... '...'
... 3년 ... 20년 ... (중략) ...

... 1994년... 1~2년 ... (중략) ... 80년 ...

Q: ... 80년 ... 95년... 160~180년 ...

A: ..., ... 80년 ... (중략) ...

Q: How do you define servant leadership, and how does it differ from traditional leadership? Can you provide examples of servant leaders in various contexts?

A: Servant leadership is a leadership style where the leader's primary role is to serve the needs of their team, rather than to lead them. This approach emphasizes listening, empathy, and a commitment to the growth and well-being of team members. It differs from traditional leadership, which often focuses on authority and control. Examples of servant leaders can be found in various contexts, including business, education, and community service. For instance, a manager who prioritizes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their team members, or a teacher who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helping students learn, are both examples of servant leaders.

Q: How do you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servant leadership? Are there any specific metrics or indicators that you use to evaluate its impact on a team or organization?

A: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servant leadership can be challenging, but there are several key indicators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its impact. These include team performance, employee engagement, and organizational culture. Specific metrics that can be used to measure these indicators include turnover rates, employee satisfaction scores, and team productivity. Additionally, qualitative feedback from team members and stakeholders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effectiveness of servant leadership. For example, a team that reports high levels of engagement and satisfaction, and that consistently meets its goals, is likely a strong indicator of effective servant leadership.

Q: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servant leadership? Do you think it will become a more widely adopted leadership style in the coming years, and if so, what factors will drive this adoption?

A: I believe that servant leadership will continue to gain traction in the coming years, as organizations increasingly recognize the value of a more collaborative and supportive work environment. Factors that will drive this adoption include the growing emphasis on diversity and inclusion, the need for more agile and responsive organizations, and the increasing focus on employee well-being and engagement. Additionally, the rise of remote work and digital communication tools will likely further facilitate the adoption of servant leadership practices.

Q: Can you share some practical tips or strategies for implementing servant leadership in a team or organization? How do you ensure that team members are truly supported and empowered?

A: Some practical tips for implementing servant leadership include: 1) Listen actively to team members and seek to understand their needs and perspectives. 2) Empower team members by providing them with the resources and support they need to succeed. 3) Foster a culture of collaboration and mutual respect. 4) Encourage team members to take ownership of their work and to support each other. 5) Be vulnerable and open to feedback. 6) Celebrate team successes and recognize individual contributions. 7) Practice self-care and maintain your own well-being. 8) Be consistent in your actions and words. 9) Seek out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learning. 10) Stay open to new ideas and perspectives.

Q: What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 system? How do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Can you provide a detailed overview of the architecture?

A: The system consists of several key components: the user interface, the data processing engine, and the storage layer. The user interface allows users to input data and view results. The data processing engine handles the core logic and calculations. The storage layer manages the data persistence. These components interact through well-defined APIs and data flows.

Regarding the data processing engine, it utilizes a distributed computing framework to handle large volumes of data efficiently. The system is designed to be scalable and fault-tolerant, ensuring high availability and performance.

Q: How does the system ensure data security and privacy? What measures are in place to protect sensitive information?

A: Data security and privacy are paramount in this system. We implement robust encryption for data at rest and in transit. Access controls are strictly enforced to ensure only authorized users can view or modify data. Regular security audits and updates are conducted to address any vulnerabilities.

The system also features comprehensive logging and monitoring capabilities to detect and respond to any suspicious activity. Data retention policies are clearly defined and enforced to ensure compliance with relevant regulations. Overall, the system is built with a strong focus on security and privacy.

Q: What are the system's performance metrics and how are they monitored? Can you provide examples of typical usage scenarios?

A: The system's performance is measured using various metrics such as response time, throughput, and resource utilization. These metrics are continuously monitored using advanced tools and dashboards. Typical usage scenarios include data ingestion from multiple sources, real-time processing, and reporting generation. The system is designed to handle high loads and maintain consistent performance.

Q: How does the system handle errors and exceptions? What are the recovery procedures in case of a system outage?

00/00000. 2013 00 000000000 000000 0000 00. 00 000000 0000, 00
000 000000000 000 0000 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
000 0 0000

<00 000-000 00 2>

0000003.0 2020 9000 00 00000 . 000 000000000 000 00 <0000 00> 00
00 000 00 000 000 000000. 00 200 000 000 00 000 000 00000 000000
000 000000 000 00.

00 00 000 00 00 000 00 '00'0000 0 000

000(0000 000 00)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운영되는 '2021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2021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고가의 이공가>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운영되는 ‘2021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싸울 것이다.”



박현주 박/원 (박현주, Park Hyeonju)

박현주 박/원

‘우’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와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박현주(박현주 박/원)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우’와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우’는 ‘우리’와 달리 좀 더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을 준다. ‘우리’는 더 포괄적이고 공동체적인 느낌을 준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와 ‘우리’의 차이를 넘어서, ‘우’와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우’는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우’의 집합이 된다. 이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제 ‘우’와 ‘우리’를 구분하지 않고, ‘우’와 ‘우리’를 함께 사용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 ‘우’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하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이 시기에 우리는 ‘우’와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다. ‘우’는 ‘우리’와 달리 좀 더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느낌을 준다. ‘우리’는 더 포괄적이고 공동체적인 느낌을 준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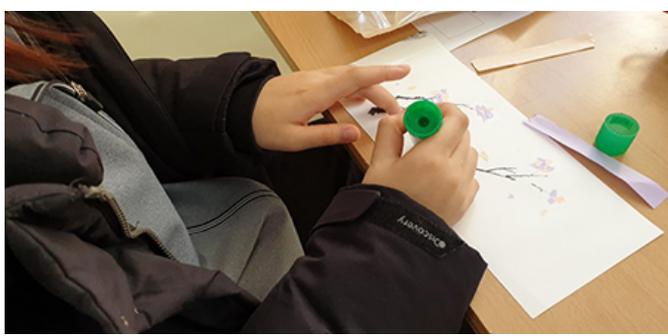


○○○○○○○○ ○○·○○○ ○○ ○○○○ <2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 ○○○○ ○○○○: ○○○○ ○○○> ○○ ○○ (○○: ○○○○○○○○)

○○○○○ ○○○○○○ ○○ 2020○ ○○○○ 4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